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위드 코로나 시대, 옛 거리·옛 골목 개조하여 관광 산업 견인

사회·복지 건강 지식 대중화를 위한 '건강생활호' 테마 열차 운행

문화·관광 시민 홍보대사들과 함께 이루는 국제 컨벤션 도시의 꿈

도시계획·주택 랜드마크 구축 프로젝트로 도시 경쟁력 강화 견인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북·중·남미〉

미국

시카고	강기향
올랜도	박혜진
하와이	임지연
휴스턴	이경선

캐나다

에드먼턴	장지훈
토론토	고한나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한 울
------	-----

〈아시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	-----

인도

뉴델리	박원빈
	박효택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박재현
------	-----

중국

광저우	손지현
베이징	정민욱
충칭	모종혁

〈유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장한빛
-------	-----

독일

베를린	홍남명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스페인

바르셀로나	진광선
-------	-----

이탈리아

로마	서동화
피렌체	김예름

프랑스

파리	김나래
----	-----

위드 코로나 시대, 옛 거리·옛 골목 개조하여 관광산업 견인

중국 충칭시 / 도시계획·주택

2022년 12월 7일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버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되었으며, 도시가 봉쇄됐던 충칭시는 10여 일 만에 주요 관광지에서 관광객이 빠르게 급증. 충칭시가 2020년부터 진행한 개조사업 덕분에 전통과 특색을 갖춘 옛 거리와 옛 골목을 찾는 관광객 급증. 옛 거리·옛 골목 개조사업은 과거 ‘문지마 재개발’에서 벗어나 앞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주민의 거주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관광객이 몰리는 옛 거리·옛 골목

- 2022년 12월 7일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한층 더 최적화 이행에 관한 통지(이하 ‘10개 조치’)’를 발표하면서 2년여 동안 지속해 왔던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버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시작
 - ‘10개 조치’ 발표 이후 11월 상순 이래 중국에서 광둥(廣東)성 다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와 도시를 처음으로 봉쇄했던 충칭(重慶)시는 봉쇄를 전면 해제하고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
 - 거의 한 달에 가까운 도시 봉쇄로 충칭시에서는 11월 26일과 27일에 이를 향의 하는 대규모 거리 시위가 일어났음
- 위드 코로나 시대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10여 일 만에 충칭시의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
 - 특히 충칭시만의 전통과 특색을 갖춘 옛 거리·옛 골목을 중심으로 관광객이 밀려들고 있음
 - 충칭시는 전체 면적 중 75%가 산으로, 중국 주요 도시 중 유일하게 도시 중심과 여러 부심이 언덕 위에 형성되어 ‘산의 도시(山城)’라고 불림. 중국에서 가장 긴 장강(長江, 양쯔강)과 장강의 가장 큰 지류인 자링강(嘉陵江)이 합류하는 지점임
 - 관광객이 몰려드는 옛 거리·옛 골목인 홍야동(洪崖洞), 스바티(十八梯), 탄쯔스(彈子石), 츠치커우(磁器口), 산청샹(山城巷) 등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본래의 원형을 최대한 살리면서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만 바꾸는 개조사업을 진행했음

- 옛 거리·옛 골목 개조사업은 주민의 거주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관광객이 찾아서 즐기고 소비하기 편하도록 사업을 추진해 왔음



[사진] 산과 언덕에 기대고 강을 앞에 둔 충칭시의 한 옛 거리 (출처: 중국 CCTV 뉴스넷)

기존 도시개발 패러다임에서 전환한 충칭시

- 옛 거리·옛 골목 개조사업은 2022년 3월에 충칭시 주택과 도시건설위원회가 발표한 ‘《충칭시 도시 리모델링 기술 가이드라인(重慶市城市更新技術導則, 이하 ‘가이드라인’)》에 관한 통지’에 기반을 두고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중임
 - 가이드라인은 2019년부터 3년 동안 충칭시가 도시 개발과 주택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 나갈지 연구하고 고민한 결과를 89쪽에 담은 장문의 정책 방향
 -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존의 ‘묻지마 재개발’ 패러다임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오래된 거리와 골목을 시정부의 세밀한 계획에 따라 개발 사업과 리모델링이 진행되도록 설정. 기존 거리와 골목의 건축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특색 있는 역사와 환경을 조성하며 옛 역사문화를 보존하는 등의 측면을 고려함
 - 이를 통해 오래된 거리와 골목을 주민에겐 살기 좋고 관광객에겐 찾아 즐기기 편한 생활구역으로 승격시키는 일에 일조하도록 정책 방향을 잡음
- 가이드라인에서 기존 도시 개발과 주택 리모델링 패러다임을 전환한 이유는 중국이 인구 감소를 목전에 두고 있고, 충칭시는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

- 2022년 10월 중국 중앙부처인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제14차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 5개년 계획 기간(2021~2025년) 중 인구 감소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발표. 중국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인구 감소 전망을 공식적으로 내놓음
 - 2021년 중국 인구는 14억 2,586만 명으로 전년 대비 0.1%가 증가해서 1949년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는 1961년에 -0.04%를 기록한 이래 가장 낮았음.¹⁾ 2021년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1.2명으로, 2018년 1.5명에서 가파르게 하락²⁾
- 2021년 말 충칭시의 상주인구는 3,212만 명인데, 그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570만 명에 달해 전체 시 인구의 17.8%를 차지
 - 충칭시의 고령인구 비율은 중국 평균인 14.2%보다 3.6%가 높아 중국 내 31개 성(省), 시(市), 자치구(自治區) 중 1위를 차지. 특히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평균 0.75%씩 늘어 중국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랐음
- 충칭시 정부는 옛 거리·옛 골목을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개발과 리모델링을 밀어붙이기보다는 현재 사는 거리와 골목 속 공동체에 익숙한 주민의 생활을 최대한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가이드라인에서 제시
 - 과거에는 옛 거주지를 허물고 새 거주지를 짓는 형태로 재개발을 진행하여 옛 거리·옛 골목에 살던 주민이 생활 터전을 잃고 다른 곳으로 쫓겨나듯 이주하는 사례가 대다수였음
 - 현재는 옛 거리·옛 골목에 사는 주민의 거주권을 최대한 지켜서 본래 터전에 계속 살아가도록 해 주기에, 인구의 분산과 해체를 막는 장점이 있음

http://cq.news.cn/2022-12/22/c_1129224944.htm

<https://new.qq.com/rain/a/20221209A044GB00>

<https://baike.baidu.com/item/弹子石老街/22625027>

<https://baike.baidu.com/item/十八梯传统风貌区/49810466>

http://zfcxjw.cq.gov.cn/zwxw_166/gsgg/202203/t20220330_10570445.html

모종혁 통신원, jhmo71@naver.com

1) 1961년에 중국 인구가 감소한 원인은 1958년에 마오쩌둥(毛澤東)이 주창해서 실시했던 산업화 정책인 대약진(大躍進)운동이 처참히 실패했고, 옆친 데 덮친 격으로 1960년과 1961년에는 가뭄이 발생하여 대기근이 일어났기 때문

2) '합계 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 기간인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가리킴

시민 홍보대사들과 함께 이루는 국제 컨벤션 도시의 꿈

이탈리아 피렌체시 / 문화·관광

피렌체시는 관광 도시를 넘어 국제 컨벤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국제회의, 전시 박람회 유치에 기여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상을 수여하는 ‘플로렌스¹⁾ 엠버서더 시상식(Florence Ambassador Award)’을 개최

배경 및 목적

- 도시 영향력 관점에서 MICE(Meetings, Incentives, Conferences, Exhibitions: 기업회의, 인센티브 여행, 국제회의, 전시 및 박람회) 관광의 중요성 대두
 - 규모가 비슷한 유럽의 다른 도시들과 비교하여 피렌체시가 약 20% 더 많은 기업 회의 및 박람회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됨
 - 피렌체시는 도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MICE 관광 산업의 잠재력을 간파하고 2014년 플로렌스 아카데미 리더십 프로그램(FALP: Florence Academics & Leadership Program)을 런칭하여 체계적 활동을 시작
 - ‘함께 피렌체를 성장시키자(Facciamo crescere Firenze insieme)’라는 슬로건을 걸고 MICE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학술기관, 대학, 전문시설과 협업을 시작했고 관광객에게 최고 수준의 경험을 선사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
- 코로나19로 관광객 수가 급감함에 따라 미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 모색
 - 일반적인 관광객을 제외하고,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 문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움직임이 필요
- 도시의 새로운 포지셔닝 기회
 - 관광도시를 넘어 지식도시(City of Knowledge)로 도약하고자 하는 피렌체시의 목표
 - 유럽에서 MICE 관광 분야의 가장 매력적인 개최지로 거듭나고자 함

주요 내용

- 플로렌스 엠버서더 어워드는 도시의 국제 행사나 회의 유치에 기여한 각 분야 전문가의 공로를 피렌체시가 인정하는 행사

1) 플로렌스는 피렌체를 영어로 표기한 도시명

- 피렌체의 영어식 이름인 플로렌스를 사용하여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자 함
- 2017년 처음 시작하여 2022년 11월에 여섯 번째를 맞이한 연간 행사
- 피렌체시와 함께 피렌체 컨벤션센터, 상공회의소, 농업 및 수공예 진흥원, 여러 대학과 협업
- 도시의 시청사이자 르네상스 건축의 상징인 베기오 궁전(Palazzo Vecchio)에서 개최되며 피렌체 시민을 위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로 자리 잡음
- **엠버서더 선정 기준은 학문, 의학, 관광 등 어떤 분야든 제한이 없으며 피렌체시에서 국제회의 및 박람회 등 다양한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가로 선정**
 - 유럽 연합의 경제 총회를 피렌체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기여한 피렌체의 경제 재정 분야 전문가
 - 매년 피렌체에서 세계 럭셔리 관광 회담을 개최하는 두코 트래블 서밋(Duco Travel Summit)의 창업자
 - 피렌체에서 국제적인 이벤트를 개최하는 데 기여한 호텔 CEO
 - 매년 전 세계에서 1천 명 이상이 참여하는 피렌체 마라톤의 총 책임자
 - 피렌체에서 패션 행사 유치에 기여한 패션 창업가
 - 2024년 국제 항공학 회의를 피렌체에서 개최하는 데 기여한 이탈리아 항공학 협회 회원
 - 피렌체에서 최초로 병리학 학회를 개최하는 데 기여한 피렌체 대학교의 병리학 교수
 - 이 외에도 피렌체 대학교의 신경생물학자 연구원, 피사 대학교의 물리학과 교수, 피렌체 카레지 종합병원의 세포학 연구원, 생체 로봇 공학자, 문화 회의 및 박람회 행사 창립자 등 분야를 망라한 전문가들이 선정됨

정책 평가 및 의의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잠시 주춤했던 관광업계가 살아나는 계기**
 - 피렌체시와 함께 여러 기관의 노력 덕분에 2027년까지 크고 작은 국제회의 행사 11건을 개최하는 성과를 이룸
 - 약 2천700만 유로(약 260억 원)의 경제적 이익 창출 기대
- 단순한 관광 도시로서 홍보를 넘어 도시의 사회, 문화적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적인 도시 홍보 방안이라는 긍정적인 평가

<https://www.conventionbureau.it/florence-ambassador-award-vecchia/?lang=en>
<https://www.firenzefiera.it/en/news/florence-honours-its-new-ambassadors-with-the-6th-edition-of-the-florence-ambassador-award>
<https://www.destinationflorencecvb.com/florence-ambassador-award/>
<https://www.gallitorrini.com/comunicati/sesta-edizione-dei-florence-ambassador-award-con-la-premiation-e-degli-ambassador-della-citta-di-firenze/>
<https://www.stamptoscana.it/torna-florence-ambassador-award-33-premiati-nel-salone-dei-500/>
<https://ilreporter.it/sezioni/lavoro-e-economia/firenze-capitale-dei-congressi-torna-il-florence-ambassador-award/>

김 예 림 통신원, yereumkim@gmail.com

건강 지식 대중화를 위한 ‘건강생활호’ 테마 열차 운행

중국 광저우시 / 사회·복지

광저우는 1월 17일 2023년 건강지킴이 동행의 일환으로 하이주-광저우타워역의 트램과 지하철 1호선에 ‘건강생활호(健康生活号)’ 테마 열차를 운행하기 시작. ‘건강생활호’를 이용해 시민이 만성질환 관련 지식과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고 믿고 사용하도록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건강교육을 실시. ‘모든 사람이 자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첫 번째 사람’이라는 슬로건을 선정해, 자신과 가족의 실제 상황에 맞는 건강한 생활방식을 기르도록 장려

‘건강생활호’ 테마 열차 운행 배경

- 2019년 중국 국무원은 ‘건강한 중국 행동《健康中国行动(2019-2030)》’을 발표
 - 중국 정부는 2019년부터 2030년까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로드맵 제시. 2030년까지 중국 국민의 발병률을 낮추고 질병 예방을 위해 건강 지식 대중화, 합리적인 식단, 국가 피트니스, 건강 환경 증진 등에 관한 포괄적 정책 제시
 - 국민 개인이 건강한 생활 방식을 추구할 것을 강조함에 따라 개인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
- 잇따라 광둥성 지방정부도 ‘건강한 광둥 행동《健康广东行动(2019-2030)》’을 발표하며 공중보건을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건강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
 - 광둥성 위생건강위원회(广东省卫生健康委员会)와 광둥성 위생건강선전교육센터(广东省卫生健康宣传教育中心)는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 건강위생 홍보와 교육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그 예로 광저우 타워 같은 도시의 랜드마크 건물에 조명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에게 건강 지식을 전파
- 동시에 코로나19를 겪으며 중국인의 보건과 건강에 관한 인식이 빠르게 개선되는 추세임
 -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시민이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과제임
 - 이에 따라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갖추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대중화해 시민 모두가 건강 지식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건강에 책임지는 생활을 실천하도록 정부가 나서서 노력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광저우에 ‘건강생활호’ 테마 열차를 도입해 다양한 경로, 형태, 방법으로 대중에게 건강 지식 보급 강화
 - 코로나라는 새로운 정세 속에서 보건 및 건강 교육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광동식 건강 홍보 모델’ 만드는 것이 목표
 - 2021년 하루 평균 승객 수가 200만 명이 넘는 광저우 1호선, 2호선에 ‘건강생활호’ 테마 열차를 도입해 성공적인 운영을 경험. 이를 바탕으로 광저우 시민이 출퇴근에 주로 이용하는 하이주선(海珠线)트램과 광저우 1호선에서 ‘건강생활호’ 테마 열차 운행 시작

구체적 내용: 객차 안을 활용해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보건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임

- 트램을 타는 동안 시민이 의자 등받이, 객차 바닥 등 어느 곳에서나 건강 주제에 관한 지식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설계
 - 합리적인 식단, 적당한 운동, 금연과 금주, 정신건강 등 건강한 생활방식 관련 주제나 만성질환과 암 등에 관한 내용으로 맞춤형 전시와 홍보를 진행
 - 이러한 전시와 홍보는 광동성의 권위 있는 임상의학 및 예방의학 전문가 팀을 초청하여 엄격하게 검토, 전문성 있는 내용으로 구성
 - 건강 지식 이외에도 ‘24시간 광동성 정신건강 핫라인’ 등 지방정부의 다양한 공공 보건 서비스를 홍보



[사진 1] ‘건강생활호’ 테마 열차의 내부 모습

- 시민이 쉽게 건강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즐거움과 재미를 추가한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
 - 객차 안에 있는 코드를 스캔하면, 질병에 관한 질의응답, 건강지식 퀴즈, 간암 발생 위험 등의 자가 건강위험 측정, 광저우 의과대학 부속 제1병원이 제공하는 권위 있는 각종 정보 등 다양한 상호작용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음



[사진 2] '건강생활호' 테마 열차 안에 있는 QR코드

광저우 내의 '건강생활호' 테마 열차 이외에도 운행 범위가 넓은 고속철도를 활용해 시민에게 전문적인 건강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자 노력

- 광둥성 광저우시에서 잔장시까지 운행되는 철도(广湛线)와 메이저우에서 산토우를 연결하는 철도(广梅汕) 등 두 노선을 오가는 6개의 고속 열차에서 시범적으로 실시
 -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치매, 골다공증, 암 등 여섯 가지 만성질환의 핵심 내용을 홍보하며, 앞으로 이러한 운행 수단이 위생 건강 정보를 보급하는 '지식의 역'으로 활용되는 것이 최종 목표임

https://mp.weixin.qq.com/s/2Z_bvN21liebv0TRbWCc-g

<https://mp.weixin.qq.com/s/ELthQ894U5C08mAJwWk-gA>

https://mp.weixin.qq.com/s?__biz=MzI3ODc5MjA1Ng==&mid=2247670706&idx=1&sn=f16ac62d8da2c9febd01fd88857fac9a&chksm=eb5d89a5dc2a00b3f41f32273ebe549ecc8cc34982d2b9d1d4faaf212d591846171ddb44acfa&scene=21#wechat_redirect

손지현 통신원, son_passion@naver.com

랜드마크 구축 프로젝트로 도시 경쟁력 강화 건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시/ 도시계획·주택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시는 지자체의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지역민의 상생모델이 되는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방안 마련. 이를 위해 공동체 후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쿠알라룸푸르시 지역 경계에 지자체 상징성을 살리는 프로젝트 운영

말레이시아 대표 랜드마크 조성 배경

- 쿠알라룸푸르시 말레이시아 대표 랜드마크로 전환하려는 움직임
 - 세계 초고층 건물 2위인 메르데카 118(Merdeka 118)의 2023년 중순 완공을 앞두고 메르데카 118을 랜드마크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방침
 - 쿠알라룸푸르시 지자체를 말레이시아 랜드마크로 만들고자 지역 경계에 도시를 상징하는 조형물, 나무 등을 설치하는 프로젝트 운영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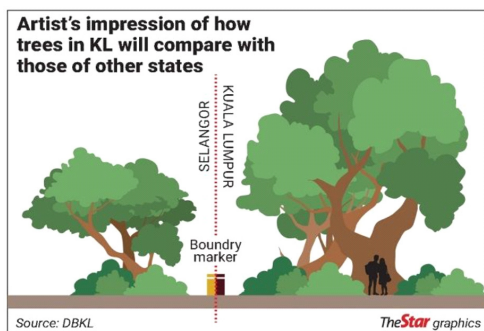
- 메르데카 118 공동체 후원 프로그램(Merdeka 118 Community Grants Programme) 지원
 - 말레이시아 국영 투자기관인 PNB의 자회사 PNB 메르데카 벤처스(PNB Merdeka Ventures Sdn. Berhad, PMVSB)는 메르데카 118 부지 내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후원 프로그램 마련
 - 프로그램 목표는 ① 메르데카 118 주변 지역 홍보, ② 메르데카 118 주변 지역의 역사 기념, ③ 공동체 지역경제 활성화, ④ 메르데카 118 주변 지역 콘텐츠 구축, ⑤ 메르데카 118 주변 공동체와 협력 강화 등
 - 메르데카 118 부지 주변 지역은 부킷 빈탕(Bukit Bintang), 푸두(Pudu), 캄퐁 아탐(Kampung Attap), 프탈링 자야(Petaling Street)를 포함
 - 공동체 후원 프로그램은 예술 워크숍, 사업 공동체, 문해 및 직업 교육, 스포츠 축제로 구성
 - 쿠알라룸푸르시 시청은 연구기관 씽크시티(Think City), PNB 메르데카 벤처스와 메르데카 118과 문화 축제인 PESZTA 주최
 - 2022년 9월 말레이시아 독립 65주년을 맞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외친 역사적 명소 메르데카 경기장 가상 관광, 문화유산 도보 걷기, 전통 그림자 공연 전시회

등 역사·문화 프로그램 운영

- 소규모 시장을 운영하고 청년예술가를 초청한 음악 공연, 춤·노래 경연대회를 열어 관광객의 외연을 메르데카 118 주변 부지로 확대하는 데 기여

○ 쿠알라룸푸르 경계 만들기 프로젝트

- 쿠알라룸푸르시 시청은 쿠알라룸푸르와 슬랑고르 지역의 경계¹⁾ 103.3km에 표시석, 벽화, 나무 등을 설치하는 쿠알라룸푸르 경계 표시 프로젝트(Kuala Lumpur Boundary Markers Project) 운영
 - 쿠알라룸푸르시에 진입하는 방문객을 환영하는 도로 표지판 이외에 쿠알라룸푸르를 상징하는 표시석, 벽화 등으로 방문객이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알 수 있는 기회 제공
 - 슬랑고르주에서 쿠알라룸푸르시를 잇는 도로변에 쿠알라룸푸르에서 자라는 식물 종의 가로수 식재 방안 마련
 - 2027년까지 소레아 록스부르기(*Shorea roxburghii*), 호페오 오도라타(*Hopea odorata*) 등 자생종을 식재할 계획
- 쿠알라룸푸르시 지역마다 예술 게이트 설치
 - 쿠알라룸푸르시의 주요 진입로 15곳에 쿠알라룸푸르를 상징하는 예술 게이트 설치
 - 인도계 이주민의 밀집 지역에는 인도계 문화를 반영한 게이트를 설치하는 등 지역별 문화·역사를 반영한 게이트 설치



[사진 1] 쿠알라룸푸르 경계 표시 프로젝트 (출처: 더스타)



[사진 2] 메르데카 118 문화 축제 (출처: 더스타)

1) 클랑밸리(Klang Valley)는 말레이시아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시와 슬랑고르주를 포함한다. 말레이시아는 연방국가로 쿠알라룸푸르시는 연방 직할구 가운데 하나이며, 슬랑고르주는 경기도처럼 수도와 인접하고 있는 행정구역이다.

<https://www.merdeka118.com/communitygrants/>

<https://www.thestar.com.my/metro/metro-news/2022/01/05/giving-kuala-lumpur-an-iconic-identity>

<https://www.malaymail.com/news/malaysia/2021/02/21/amid-confusion-over-district-lines-nsc-says-all-of-kl-is-one-selangor-borde/1951677>

<https://www.thestar.com.my/news/nation/2022/09/16/cultivating-inclusivity-at-the-heart-of-the-merdeka-118-precinct>

홍성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

세계도시동향 제544호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3년 1월 30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 개발과 도시 관련 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 도시의 정책 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들이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song@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ISSN 2586-5102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